

2017.11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대전 MBC

# 2017년 11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사명 : 대전문화방송(주)

## 1. 회의개최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수		비 고
		위 원	방송사	
2017.11.28	대전MBC 대회의실	6/10	6	

○ 시청자위원 불참자(명) 명단 : 신성철, 함진호, 이승선, 신종성

○ 방송사 주요참석자 명단: 대표이사, 오승용 경영기술국장, 장래균 편성제작  
국장, 신영환 편집부장, 김미리 사업국장, 우경수 경영심의부장

##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7	7	-	-	14	-	14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 분	수 용	의견참고	반 론	계
건 수	13	1	-	14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 월
계	8건	8건	10, 11월
교양	교양 프로그램에서 맛집 소개 시 특색 없는 소비지향적인 곳 피하도록	“전국이 보인다(11/12)”에서 영덕물회, 도루묵찌게 등 향토적인 음식 소개	11월
교양	“전국이 보인다” 교양 프로그램에서 특정지역 반복 소개 보다는 각 지역 골고루 소개	“전국이 보인다(11/5)”에서 평창-경북 구미-강릉-청주-전주-전남무안-강원 속초 순으로 특정지역 겹치지 않음	11월
보도	기사 작성 시 “올 겨울 가장 추운 날씨, 가을억새꽃” 같은 문법에 맞지 않는 어휘 사용 유의해야	11월 뉴스기사 작성 시 문법에 맞지 않는 어휘 사용 사전에 체크해 방송	11월
보도	살인사건 보도가 많은 요즘 따뜻한 뉴스 발굴 필요	생명공학연구원 포항지진성금 616만원 전달(11/20) 등 보도	11월
교양	백제문화제 등 지역의 큰 행사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지길	“전국이 보인다(10/15)”에서 백제문화제 프로그램 소개	10월
교양	충남 농업인과 충남 농산물 소개하는 프로그램 활성화 필요	“힘내라 우리 농업”에서 매주 화요일(TV)충남 농산물과 재배하는 농업인들 소개하는 기획 프로그램 제작 방영 중	11월
보도	보도 다큐 “노벨과학상 작은 세계에서 미래를 보다”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를 사례 예시가 필요	보도 다큐 “노벨과학상 작은 세계에서 미래를 보다” 생리의학편(11/13)은 효모 연구로 당뇨, 결핵의 치료, 노화의 연구 진행 예시 보여줌.	11월
보도	수질 관리에 대한 뉴스 지속적 관심을	금강 3개보 단계적 개방(11/10) 등 방송	11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청 내용	조치 내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성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해당사항 없음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관련 공개 청구

요청자(단체)	공개내용	공개방법
없음	회의 내용 및 처리결과	홈페이지

나. 시청자위원 변동사항

임기: 2017. 5. 01. ~ 2018. 4. 30.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분	비고(임기)
위원장	신성철	KAIST총장	한국과학기술 한림원	과학기술단체	17.05.01- 18.04.30
	송길현	목요언론인클럽 고문	목요언론인클럽	언론관련단체	17.05.01- 18.04.30
위원	김종문	한화생명 충청지역본부장	대전상공회의소	경제단체	17.05.01- 18.04.30
위원	함진호	ETRI 표준연구본부 책임연구원	ETRI	과학기술단체	17.05.01- 18.04.30
위원	정철상	호서대학교 청소년문화상담학과 교수	(재)청소년과 사람사랑충남지회	청소년단체	17.05.01- 18.04.30
위원	이상진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충남연구원	문화단체	17.05.01- 18.04.30
위원	이승선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한국방송학회	언론관련단체	17.05.01- 18.04.30
위원	강은혜	대전YWCA 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대전YWCA	소비자단체	17.05.01- 18.04.30
위원	신종성	골프존 네트워크 대표이사	대전상공회의소	경제단체	17.05.01- 18.04.30
위원	김은주	변호사	대전지방변호사회	변호사단체	17.05.01- 18.04.30

\*신성철, 송길현, 김종문, 함진호, 김은주 위원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 의견제시 및 시정요구에 대한 답변 (11월)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고		
			수용	참고	반론
교양	TV특강(11/20)에서 “심리학자가 들려주는 아기 잘 키우는 법”을 시청하였다. 아이와 교류를 많이 해야 한다는 내용과 그 중요성에 대하여는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긴 했지만, 심리학자의 입으로 들으니깐, 막연히 알고 있는 지식에 힘이 실리는 기분이었다. 강연 경험이 많은 심리학자이고, 내가 6살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라 그런지 강연내용이 쑥씩 들어왔다. 그런데 후반부는 지루했다. 지루한 것을 조금도 못 참는 요즘 사람들의 성정상 이런 경우, 동시간대에 방송되는 타 프로그램과 비교해서 경쟁력이 있는지 모르겠다(김은주).	TV특강은 12개 지역 MBC가 공동으로 기획한 공개강좌 프로그램으로 지역 시청자들에게 교양과 함께 흥미를 제공코자 노력하고 있다. 프로그램 성격상 강연자의 강연내용이 프로그램을 좌우하기에 강연자 선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보도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내일 대법원 선고 예정에 대한 보도(11월 13일)를 하면서 마지막에 ‘트램과 월평공원 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이, 마치 제동이 걸리기를 바라는 것처럼 느껴져서 듣기 불편했다. 시장이 없어도 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으로 시정에 차질이 없게 진행하면 된다고 생각된다. 위 표현은 ‘트램과 월평공원 사업에 제동이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했을 거라 생각된다(김은주).	상황표현을 객관적 관점에서 시청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을 세심하게 살펴보겠다.	○		
보도	뉴스데스크(11월 14일) 보도에서 권선택 대전시장의 시장직 상실에 대한 내용을 전달했다 대법원 판결 내용과 그동안 소송 진행 내용 및 법적 쟁점을 개략적으로라도 정리해서 보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4년 동안 진행된 내용이며 대법원의 최종 결론인데 너무 간략히 결론만 보도한 것은 아쉽다(김은주).	지금 인력이 부족한 상태라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 아쉽다. 우리 지역에서 이슈가 되는 사건 사고는 큰 맥락에서 다시 정리 할 수 있는 팩트 보도는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겠다.	○		
보도	뉴스 프로그램의 중요기능 중 하나로 정보의 공정성과 신속성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뉴스는 각계각층에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사항을 먼저 종합적으로 스크린 한 후 일정한 원칙에 따라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방송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11월 뉴스 내용 중 상당부분이 폭력 등 지역사회의	시청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의제를 뉴스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이기 때문에 한 해를 정리하면서 2018년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도록 뉴스 제작에 힘쓰겠다.	○		

	어두운 면이 많이 다루어지는 듯하여, 12월 중에는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기로 문화, 과학기술, 정책, 교육, 행사 등 지역의 훈훈한 소식과 희망이 담긴 내용이 보다 더 많이 보도되길 희망한다(이상진).			
보도	뉴스데스크 11월 11일 방영된 금강 3개보 내년 2월까지 전면 개방 보도와 관련, 수위는 해수면 수위를 말하는 것으로 시청자의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깊이로 표현함이 타당하리라 판단된다. 즉, 세종보의 수위는 11.8m이지만 수심은 3~4m정도이다. 즉 수위는 평균해수면(해발고도, geoid면)으로부터 높이이므로 11m 보도함으로써 시청자는 수심이 11m로 착각하기 쉽다.(공주보, 부여보 도 마찬가지로)(이상진).	기사의 정확한 표현을 하도록 하겠다.		
보도	뉴스 기사 작성 시 유의할 점을 말하고자 한다. 11월 13일 뉴스 기사 중에서 “내년부터 중학교 전학년 무상급식을 위해 무상급식 예산을 257억 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라는 기사가 방송되었다. 이 기사는 수정을 해야 한다. 즉 “내년부터 중학교 전학년 무상급식을 위해 전년대비 00% 증가한 257억 원을 편성하여 제출 했습니다”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본다(이상진)	뉴스 기사 작성 시 통계처리가 필요한 부분은 정확하게 통계처리를 한 기사를 작성하여 제작하도록 하겠다.	○	
교양	TV특강 “자기PR과 이미지메이킹”(11/27)편이 방송되었다. 셀프PR의 필수요소로 나의 이미지,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부분(지성미, 말투, 외모, 헤어스타일, 눈빛, 목소리 등)을 확실히 인지하고 정립해야 된다는 부분이 충분히 공감되었다. 특강의 장소가 청중이 몇 명 앉을 수 없는 협소한 장소이다. 넓은 장소에서 진행하는 방법을 강구해보자. 더 많은 시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대강당이나 길러리 특강(버스킹)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여도 좋을 듯싶다(김종문).	좋은 의견에 감사하다. 의견대로 대강당에서 강연하는 방법도 시도한 적이 있었다. 항상 새로운 신선함을 주고자 다양한 장소(대강당, 소강당, 문화예술카페, 음악당 등)에서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보도	충남 폐광산 주변 주민의 39.3%가 석면질환 의심된다는 내용(11/10)을 보도했다. 석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시청자 입장에서는 구체적 강화대책까지 보도를 했으면 한다(김종문).	뉴스 제작 시 의견을 반영하겠다.	○	

<p><b>보도</b></p>	<p>현재 뉴스는 단순히 뉴스라는 형식만 있고 알맹이 없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뉴스들로 채어져 있다. 하루 빨리 정상화되어 시청자들이 관심 가질만한 의미 있는 뉴스를 제작했으면 한다. 그나마 하단 자막에 지역의 주요 뉴스가 제대로 처리되고 있어 위안을 삼는다(송길현).</p>	<p>정상화가 되면 무엇보다도 뉴스 제작에 만전을 기하겠다. 현재는 기자들의 취재 리포트물도 없이 단신 뉴스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청자들의 관심을 다시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p>			
<p><b>교양</b></p>	<p>전국이 보인다(11/12) 첫 코너에서 나레이션으로 와플에 대해 설명하는 중에 나레이션 멘트가 비어 당황스러웠다. 그리고 평소와 와플에 격자무늬가 왜 있는지 궁금했는데 평소에 사람들이 궁금해 하지만 사소한 것에 대한 설명이 있는 부분이 좋았다. 영덕에 대해서 소개할 때 말풍선이나 자막이 영상과 잘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있다(정철상).</p>	<p>‘전국이 보인다’는 지역MBC 16개사가 공동으로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럼으로 제작 스타일이 다양하다. 나레이션 멘트가 빈 것은 제작자의 의도로 풀이된다.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자막은 신경쓰도록 하겠다.</p>	○		
<p><b>교양</b></p>	<p>‘TV특강’(11/13)을 시청하였다. 이 날 방송은 소리와 상처를 화폭에 담는 화가, 권기철씨가 게스트로 출연했다. 프로그램 제목은 TV특강인데 방송은 인터뷰 형식이라서 조금 더 게스트가 준비하고 게스트에 초점을 맞춘 특강식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한다(정철상).</p>	<p>훌륭한 강연자는 시청자의 눈높이에 맞게 강연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터뷰 형식의 강연은 강연자를 배려한 제작진 의도라 여겨진다.</p>		○	
<p><b>교양</b></p>	<p>‘가요베스트’(11/22)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트로트 위주의 프로그램이다. 아쉬운 점은 카메라 워킹이 현란해서 조금 산만해 보인다는 것이다. 사회자가 가수의 음악에 대해서 소개하는 게 아니라 외모에 대해 ‘섹시하다’라고 하는 단어선택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정철상).</p>	<p>가요베스트는 지역MBC가 공동 기획·제작하는 트로트 중심의 성인가요 프로그램이다. 대체적으로 지역의 축제현장에서 지역민을 위로해온 장수프로다. 현란한 카메라 워킹은 음악 템포에 맞게 제작진이 연출하고 있다. 부적절한 단어선택은 주의하겠다.</p>	○		
<p><b>교양</b></p>	<p>11월 12일에 방송된 ‘전국이 보인다’에서는 청주에 있는 꽃케이크 전문점을 창업한 주인공의 이야기가 소개되었다. 보통 “전국이 보인다”에서는 맛집이나 지역행사 소개가 많은데 남편과 함께 모란꽃 케이크전문점을 창업하여 중국진출까지 하게 된 여주인공의 스토리에서 성실함과 도전정신을 느끼게 되어 짧은 스토리였지만 감동이 있어 참 좋았다. 맛집이나 행사 소개도 좋지만 다양한 지역에서 따뜻하고 감동이 있는 소식도 많이 소개 되면 좋겠다(강은혜).</p>	<p>좋은 칭찬에 감사하다. 전국이 보인다는 볼거리 먹거리, 그리고 지역 축제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다큐 형식의 인물 소개도 간혹 다루고 있다. 더 많은 인물을 다루도록 노력하겠다.</p>	○		
<p><b>교양</b></p>	<p>11월27일과 11월 20일에 방송된 TV특강에서는 ‘자기PR과 이미지 메이킹’, ‘심리학자가 들려주는 아이 잘 키우는 법’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었다. 두 주제 모두 호감</p>	<p>강연 내용이 더 알차고 지루하지 않도록 강연자 선정에 더욱 신경을 쓰겠다. 그리고 강연 구성도 알차도록 제작진이 꼼꼼하게 관리하겠다.</p>	○		

	<p>이 가는 주제인데 반해 시간이 부족한 탓인지 강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으로 별로 특별할 것이 없어서 지루하였다. 좀 더 성의 있고 알찬 내용으로 진행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강은혜).</p>				
--	--	--	--	--	--